

기상사랑

2017. April

4

www.kma.go.kr Vol. 430

—
특집

제34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
열린마당

바다와의 한판 승부

—
날씨+스토리

봄의 일교차! 주의하세요



기상청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정보 17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
**누리집 주소와
주요 앱 소개**

영유아·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여성·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분류

저소득층·취약계층,
취업희망자·근로자,
농어업인·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중소기업,
국가보훈·제대군인 등
수혜 대상별 분류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생활 밀착형 맞춤 정보를 찾아보세요

〈희망사다리〉는 모든 국민이 희망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안내서입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정보 17개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정보
- 정책에 대한 혜택내용과 신청대상, 신청방법, 연락처 등 자세히 안내
- 정책설명 채팅창, 정책 더보기, 카툰 등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위클리 공감〉 누리집
(korea.kr/gonggam),

〈희망사다리〉 누리집
(korea.kr/hope)에서

PDF,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사랑

2017 April Vol. 430

2017년 4월호(통권 430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7년 4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고윤화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대변인실 최익수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제34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구름·바람·햇살과 그 찬란함을 만나보세요! · 02

KMA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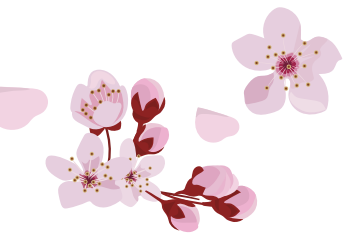
열린마당
6개월간의 좌충우돌 실무수습을 마무리하며 · 04
이탈리아에서의 따뜻한 신혼여행 · 06
기상청 예보관을 꿈꾸며 · 08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 10
지들이, 그를 논하다! · 12
바다와의 한판 승부 · 14
해외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코뿔소 외 · 16

KMA 날씨 +

날씨 + Story 봄의 일교차 주의하세요 · 18
날씨 + Book 시로 만나는 윤동주 '처럼' · 20
날씨 + Travel 역사와 로망을 간직한 도시
프라하를 다녀오다 · 22
날씨 + 일상 전주는 지금 소문만복래 · 24
날씨 + 연애 봄에 닿는 순간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4 April



07



09



25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구름·바람·햇살과 그 찬란함을 만나보세요!

제34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맞이하여, '구름·바람·햇살 그리고 그 찬란함!'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 사진을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총 2,38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40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입상한 40점은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로비에 전시되었다. 제34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쌍무지개 | 임정자

지난해 늦어름, 전날 태풍이 지나가고 노을이 질 무렵 청박을 보았는데 생애 처음으로 쌍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꺼내 들곤 16mm 어안렌즈로 쌍무지개를 찍을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봄과 겨울의 길목 | 광병숙

봄을 시샘하듯 활짝 핀 진달래 위에 춘설이 내려앉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열린 안개 속 암봉의 풍경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빛과 인천대교

워낙 추웠던 날, 인천대교 교각 아래에 내려가 확인해 보니 바닷물이 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바닷물이 얼어 동동 떠 있는 교각 아래 사이로 태양빛이 찬란하게 스며드는 신비로운 순간에 다들 아름다운 빛에 매료되어 환호했습니다.



바람! 구름! 그리고 꿈꾸는 아이들 | 김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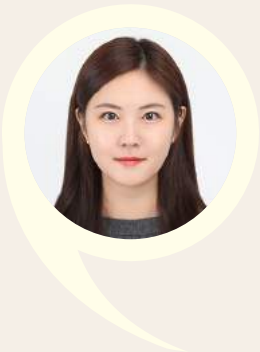
비가 올 듯하여 긴장하고 있을 때, 하늘에 둥근 천막 같은 구름이 드리우더니 모든 관중이 자리를 뜰 때쯤,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한의 아침을 열다

영하 18도의 혹한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상고대와 물안개, 그리고 찬란한 아침빛이 있는 겨울의 아침 풍경입니다.

6개월간의 좌충우돌 실무수습을 마무리하며



새내기 특권 <안혜인>

기상청에서 동기들과 함께 시작한 실무수습! 동기들과 함께 모여 매일 마주치며 다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더없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처음 시작할 땐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동기들과 함께했기에 금방 이겨낼 수 있었다. 또한, 새내기들을 정말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더욱 이곳에 정이 들게 되었다. 항상 너희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많이 물어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주임님들과 사무관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질문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한 번 질문하면 친절하게 알려 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함께 고민해주는 선배님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질문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새내기의 특권이 아닐까? 실무수습 기간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 나의 첫 직장, 첫 상사, 첫 동료들. 내가 이곳에서 처음 밟아나간 길들은 평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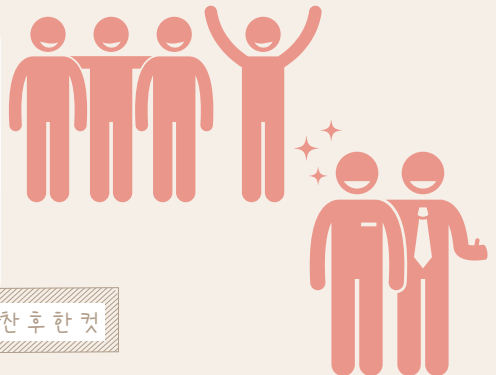


Remember, 이 Member <전일봉>

10월 중순, 날이 슬슬 추워져 코트를 꺼내 입을 무렵부터, 봄기운이 피어나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애매한 4월까지, 대변인실에서 가진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떠올려봤다. 지금도 어리바리하지만, 옛날에는 한층 더 어리바리했던 듯하다. 그래도 이런 나를 대변인실에선 귀엽게 봐주셨다.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인 일까지도 같이 응원해주셨다. 지금 나의 행복의 일부는 대변인실 덕분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나뿐만이 아니라 대변인실은 서로를 향한 동료애가 남달랐던 것 같다. 그런데, 더는 이곳에 나는 없다. 반년이 벌써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니 서글퍼진다. 나의 마음에 항상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의 눈에 더는 보이지 않게 되니 약간의 쓸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정해정 과장님과 모든 대변인실 직원분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신 분들께 이렇게 <하늘사랑>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호준 주임님이 늘 하시던 말씀으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Remember 이 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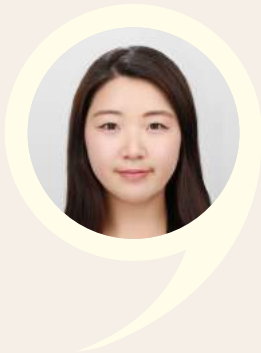


차장님과의 만찬 후 한 컷



전반과 후반 <이상진>

나의 실무수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반과 후반'이라 표현하고 싶다. 대부분의 수습생과는 달리 나는 수습을 2곳에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한 곳은 예보국의 예보분석관이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자문관님으로부터 어디에서도 들 수 없는 예보 경험과 회사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수습의 전반을 시작하였다. 또한, 예보분석관과 총괄예보팀에서 매일 일기예보를 내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면서 아. 이것이 정말 기상청의 '예보'라는 것이구나라고 느끼며 수습 전반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예보분석팀에서 수치모델개발과로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르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곳에서 과장님부터 연구원까지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수치예보모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많은 것을 배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부서들이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수습기간에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기에 기상청이라는 큰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땅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허보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의 시간을 '땅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다. 우리 부서는 작년 기상청 계기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인해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실무수습을 하면서 그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지난 '지진화산센터' 개소식에 참여했을 땐, 우리나라 지진 업무의 도약 과정을 보는 거 같아 가슴 뭉클함도 있었다. 특히, 9·12지진 현장대응팀원으로 서울-경주를 오가며 임시 지진관측망 설치 및 관측, 현장피해 조사, 지진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준비 등 연구관·주무관님들의 업무를 파악하며, 지진 업무의 방향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웠던 시간이 많았다. 우리 '땅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더욱 머리와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춘분(春分)이 지나고 길가에 심어진 나무들의 꽃봉오리가 맺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요즘, 내 마음속에도 꽃봉오리가 맺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얼마 남지 않은 수습 기간을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



이탈리아에서의 따뜻한 신혼여행

2017년 3월 18일 12시, 인생에서 중요한 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그리고 그 간의 힘겨웠던 결혼 준비에 대한 선물처럼 이탈리아로 행복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새롭게 가족이 된 남편과 함께 중세 유럽의 문화와 따뜻한 지중해의 자연이 녹아있는 로마, 포지타노,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설렘이 가득했다.



강희정
수치모델링센터



미켈란젤로의 바티칸 박물관

정신없는 결혼 준비로 인해 정작 가장 기대되었던 여행지에 대한 공부는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다. 교통편과 숙소만 정한 채 나서는 여행길이었고 특히 로마에서 무엇을 구경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현지의 여행사에서 부분적으로 한국인 가이드의 현지투어 상품을 이용해 도움을 받기로 했다. 현지투어 상품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는데, 로마에서는 바티칸 투어가 가장 인상 깊었다. 바티칸 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로, 교황과 추기경 및 수녀들이 국민인 나라이다. 바티칸 시국에는 바티칸 박물관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과 우리에게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볼 수 있었다. 유명한 작품들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이해하며 삶에 대한 여러 가치관을 접했다. 특히 흑사병과 전쟁으로 고통이 일상이었던 중세 시대에는 예술작품에서도 종교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시간이 멈춘 폼페이와 지중해를 품은 아말피 해안

하루는 이탈리아 남부지역을 다녀왔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폼페이 고고지구와 아말피 해안을 탐방하는 상품을 이용했다. 폼페이 고고지구의 탐방은 잘 알려진 대로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있던 고대도시였던 폼페이는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 그 자체였다.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도로로 유명한 아말피 해안을 보았다. 아말피 해안의 한 마을인 포지타노에서 한 시간의 자유시간 동안 사진을 찍고 레몬 사탕과 레몬 소주 등의 관광 상품을 구매했다.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알아보니 아말피 해안은 지리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었다. 빗물 등에 의해 석회암이 용식되어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중해성 식생으로 유명했다. 또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흔적과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해안 도시들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다. 이러한 아말피 해안의 가치까지 알고 구경을 한다면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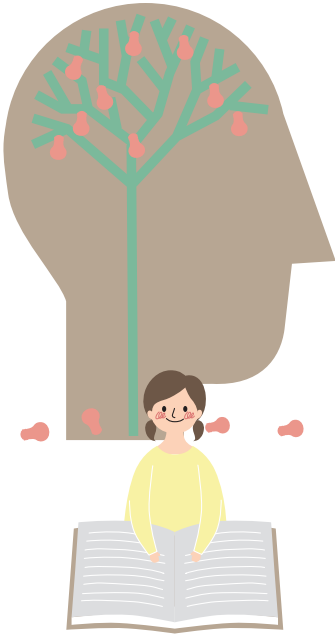
르네상스를 꽃피운 피렌체와 베네치아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중세 후기에 상업으로 부를 얻은 도시들이다. 피렌체에서는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았던 예술가들의 작품이 있는 우피치 미술관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보티첼리의 <봄>과 <비너스의 탄생> 작품의 아름다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베네치아는 산호초에 세운 해양 도시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우리의 제주도 와 같은 휴양지라고 한다. 이국적인 풍경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로, 본 섬 주변의 무라노 섬에서 제작한 아름다운 유리 공예품들이 여행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마무리해주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깊이 있는 예술작품, 함께하는 좋은 사람. 6박 8일간의 이탈리아 여행으로 최대한 이탈리아를 느끼려고 노력했다. 도시마다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놓아 언젠가는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





기상청 예보관을 꿈꾸며 부산지방기상청 인턴 체험 수기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공존하는 월요일 아침, 드디어 부산지방기상청에 인턴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루이다. 과연 어떤 분들이 맞이해 주실까? 나를 반겨는 주실까?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드디어 첫 만남

드디어 오전 9시,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문을 열고 담당 주무관님을 찾으며 남해해성고등학교에서 인턴 체험을 하게 된 조예린이라고 말하자 모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잘 왔다.”라는 인사말을 건네어 주신다.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막냇동생같이 맞이해 주셔서 괜한 걱정을 한 것만 같았다. 주무관님의 안내로 김남욱 부산지방기상청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부산기상청의 직원 및 조직을 소개받으며 다양한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예산의 편성, 집행까지 맡고 있는 기획운영과, 기상예보 및 자료 수집, 분석, 관리하면서 기상에 관한 상담 업무까지 맡고 있는 예보과, 그리고 기상관측, 예보, 전산, 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관측과, 마지막으로 지역 장기예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양기상정보를 수집하며 분석하는 기후서비스과로 분류되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해와 감사

점심식사를 마치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기상연구원을 꿈꾸는 나에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평소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고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보관님께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보관의 업무와 기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예보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조예린
남해해성고등학교

떠오르는 얼굴들

설레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니 여러 얼굴들이 떠오른다. 옆집 아저씨같이 푸근하게 나를 반겨주시던 부산지방기상청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던 황보현 주무관님, 그리고 아침의 긴장으로 지갑을 두고 온 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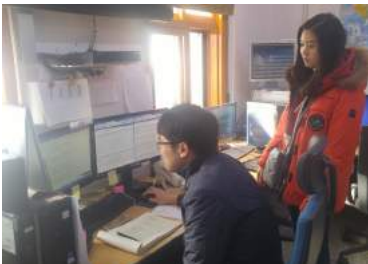
게 돈을 빌려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이송이 주무관님, 선생님같이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던 인상 좋으시던 예보관님, 홍보관 설명과 친언니같이 진로 코칭을 해주시던 너무나도 고마웠던 주무관님, 그리고 각 부서의 여러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구덕산 레이더센터

다음날 아침, 구덕산 레이더센터를 방문하였다. 아주 큰 돔 안에 약 8.5m크기에 480km까지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레이더가 전국에 10개 정도가 있으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유는 산 때문에 전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좌우로 하나씩 있다고 한다. 이후 이곳을 나와 대청동에 있는 기상관측소를 방문하여 관측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상현상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미래의 예보관의 꿈을 위해 다가가는 시간

이번 체험을 통해 기상청이 하는 일이 날씨를 예보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진을 예측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며, 화산이 폭발할 위험, 해일이 일어날 확률과 규모, 그리고 우주의 날씨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보람찬 인턴 체험이었다. 또 이를 수행하시는 예보관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자신이 담당한 지역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관측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다른 지역의 예보관들과 협의하여 예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력과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명절이 되면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는 기상청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는 하루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번 인턴체험으로 느꼈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미래 예보관이 되는 나의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어느덧, 기상청 입사 6년 차인 나는 2017년 2월 25일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다. 설레고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난 이후 가장 기대가 됐던 것은 바로 하나가 아닌 둘이서 떠나는 인생 최고의 설렘 가득한 허니문이었다. 나의 인생 최고의 여행지인 아부다비와 몰디브를 소개한다.



혼자가 아닌 둘!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를 다녀왔지만, 이번에 떠나는 여행은 혼자가 아닌 둘이서 떠나는 여행이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여행은 좋은 곳을 함께 듣고 보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짝꿍이 있을 때 더욱 즐거울 수 있는 법! 무엇보다 앞으로 평생 여행을 같이 다닐 수 있는 나의 소울메이트이자 여행메이트인 아내와 함께하니 인생 최고의 여행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바로 출발하여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곤함을 뒤로한 채 신혼여행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대구에서 출발하여 인천, 아부다비를 경유해 우리의 최종 여행지인 몰디브로 향했다.

최고의 여행지 몰디브

아시아 서남부 인도양에 위치해 있는 몰디브는 약 1,190여 개의 많은 산호섬들이 각각 푸르고 투명한 바다와 어우러져 그 자체만으로도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곳이다. 동북 쪽으로는 인도와 스리랑카가 있으며 수도인 말레(Male)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이 마치 진주목걸이 같아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불린다. 이에 몰디브를 따라붙는 수식어는 다양하면서 화려하다. 예를 들어 '평생 가고 싶은 낭만의 섬' 등 남태평양



하종훈
대구기상지청



의 타히티, 뉴칼레도니아, 세이셸과 더불어 이른바 지구상 '빅4 해변'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몰디브의 매력은 빼어난 자연풍광이다. 순백의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오렌지 빛깔의 낙조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은 과연 환상의 바다라는 수식어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섬의 평균 높이가 2m에 불과해 10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더 찾고자 조바심을 갖게 하는 나라가 바로 몰디브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몰디브를 신혼여행지로 결정했고, 바다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에겐 최고의 여행지였다.

경유지(Stop-Over) 활용하기

몰디브로 가는 항공편은 주로 싱가포르 경유가 대부분이지만 싱가폴은 과거 경유하였던 경험이 있어 다른 루트를 탐색하던 중 아부다비를 경유지로 선택하였다. 보통 목적지만 선정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경유지는 대부분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유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Stop-Over를 하여 3일간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머물러 관광을 하였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볼거리가 풍성한 국가이다. UAE의 나라 중 대표적인 상업도시인 두바이에는 버즈칼립파 등 초호화 고층 건물들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아부다비는 사막 위에 희망을 보여준 나라로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는 고층 전망대, 사막투어 등 휴양지인 몰디브와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적지만을 향하여 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 경유지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볼거리와 다국가의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내가 다녀온 최고의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지만, 이번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여행이라 다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기상청 직원들도 나와 같은 소중한 여행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잠시 여유를 가지고 떠나보는 건 어떨까?



지돌이, 그를 논하다!

소풍을 위해 살아둔 계란이 사라졌다. 육수를 우려내고 걷어 둔 멸치가 사라졌다. 미리 구워둔 팬 속 생선구이가 사라졌다.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선명한 물증! 그의 입가에 남은 계란 껍질, 멸치 비늘, 생선의 향기, 그는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를 빼고 모두가 안다,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 집 막내 지돌이다. 지돌이는 올드 잉글리쉬습독으로 양치기 견종의 대형견이다. 그와 우리 가족의 좌충우돌 동거는 현재진행 중이다.



정지인
국가기상위성센터

지돌이와의 첫 만남

2015년 11월, 여동생이 지돌이를 무작정 집에 데리고 오면서 우리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개를 무척 좋아하는 아버지, 개를 무척 무서워하는 어머니, 개를 키우겠다는 막무가내 동생, 집을 떠나있는 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이지만 3년 된 성견 같았던 지돌이, 늦기 전에 어서 돌려보내라는 실랑이 속 불협화음만 가득해 보이는 우리 가족과 지돌이와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돌이를 둘러싼 사건·사고

처음엔 지돌이는 그저 덩치 큰 순한 강아지였다. 하지만 점점 몸과 이가 자라면서 지돌이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엄청난 먹성으로 사료로는 부족하다! 싱크대를 넘보기 시작했고 피아노 의자, 벽 모서리, 인터넷 선, 아버지의 휴대폰 등을 모조리 씹어 먹기 시작했다. 현재 아버지는 지돌이가 오고 나서 3번째 새 휴대폰을 쓰고 계신다. 커지고 단단해진 몸으로 소파에 온 몸을 던지고 노는 지돌이 덕분에 우리 집 소파는 한쪽 다리가 부서져 비스듬하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가족들에게 지돌이는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그 반가움의 표시는 레슬링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지돌이로 인해 가족들은 멍은 기본이요, 유혈 사태는 덤. 2~3주에 한 번 집에 가는 나에겐 인생 일부 삽화 정도지만,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사건 사고였다.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 뉘눌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지돌이를 위해 넓은 마당을 가진 입양지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의 입양에 대해 가족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NO였다. 지돌이 때문에 항상 힘듦을 토로하지만 지돌이는 우리에게 이미 가족이었다.

미워할 수 없는 지돌이

지돌이는 사고뭉치 에너지 왕이지만 미워만 할 수 없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 가족들이 모두 방에 들어가 있으면 문 앞에서 꺾꺾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짝하면서도 기특하다. 하지만 문이 열리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이 다시 닫힐까 봐 침대로 달려가 자리 잡고 앉은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지만 사랑스럽다.

택배 아저씨께서 집에 방문하시면 잡아먹을 듯 쫓다기도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바로 꼬리를 흔들며 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친구의 짚는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도 하면서 귀엽다.



다른 여느 개들처럼 애교를 부리다가도 고양이처럼 나만의 시간을 달라며 제 편한 곳에서 눈만 흘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하나 혼란스럽지만 끌리는 친구다.

처음 듣는 소리에는 목을 뺏뺏이 바깥 동태를 살핀 후, 모두를 지켜줄 듯 짓다가 사람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붙어 있다. 그럴 땐 웬지 모르게 측은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든든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돌이는 우리 가족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반전매력과 혼란스러운 매력으로 사랑 받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

반려견과 함께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만 불편한 점도 많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가치관조차 다르다. 우리에게 그들은 삶 여러 요소 중 하나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삶의 전부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부재 시, 주인의 흔적을 찾아 이 물건 저 물건 다 건드려 보며 하염없이 기다린다. 하지만 바깥에서 온갖 풍파에 지친 우리는 어지러워진 집안을 보고 그들을 혼내기 급급하다. 이 밖에도 반려견과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반려견과의 삶인 것이다.

지돌이와 함께하는 요즘, 사건·사고의 연속이지만 가족들은 지돌이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 중이다. 가족들의 노력과 함께 지돌이가 항상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줬음 좋겠다. 지돌이는 우리 가족이니깐!

바다와의 한판 승부

3월, 드디어 목 빠지게 기다리던 낚시 시즌이 개막했다. 전국의 모든 낚시꾼들에게 봄 내음은 가슴을 뛰게 만들며, 작년의 짜릿한 손맛을 상상하게 만든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보이지 않던 낚시인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겨울 동안 작년 조과 사진과 TV의 낚시 방송으로 대리만족만 하던 나도 미리 준비를 마친 낚시 장비를 챙겨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다.

첫 조과, 봄 도다리

최근 동해안 여기저기에서 도다리 조과(낚시로 고기를 낚은 성과)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바다 낚시의 시즌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산란을 마치고 허기진 몸을 보충한, 더욱 뽕뽕해진 봄날의 도다리는 손맛뿐만 아니라 특유의 감칠맛과 쫄깃함으로 부가적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나의 올해 첫 조과 또한 봄 도다리였다.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간 강릉항구 내항에서 미끼를 던졌고, 내 존재가 바다풍경에 녹아들 무렵 그는 미끼를 물어버렸다. 초릿대가 어느 순간 확 누워버리면서 나른했던 나의 모든 신경은 되살아났었고, 예고 없이 시작된 승부는 감성돔이나 농어 같은 파이팅 넘치는 경기는 아니더라도 낚시대 끝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묵직한 체중과 미끼에 대한 의심 없는 과감한 입질은 상대하는 사람의 가슴을 뺏 뚫어버린다. 그리고 인간의 힘에 제압되어 별수 없이 끌려오다가 결국 모습을 드러낸 자신의 대전 상대를 확인했을 때, 널찍한 흰 배를 확인했을 때의 벅찬 가슴의 꿈어오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후 두 마리의 도다리를 추가로 잡으면서 그날의 횡감은 채워졌기에 만족하고 귀가했다.

낚시로 친해진 날씨정보

낚시의 즐거움을 위해 바다 날씨 예보는 필수 정보가 된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낚시를 포기해야 하는지, 풍속이 빨라서 낚시줄 관리가 힘들지 않을지, 운량 및 파고로 인한 조과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지, 바다 수온으로 인해 어떤 고기가 잡힐지 등등 날씨 요소는 낚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물고기 종류마다 좋아하는 바다 날씨 기호를 가지고 있어서, 예보 정보에 따라 낚시 장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러한 날씨 정보는 조과의 확률을 높이는 것뿐이지, 아무리 최적의 날씨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다. 고기는 번덕쟁이고 바다는 알 수 없으며, 그래서 더욱 낚시라는 장르가 매력이 있지 않나 싶다.



조은수
강원지방기상청



날씨 정보는 안전상의 이유로도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 비 오는 날 또는 비 그친 뒤의 갯바위와 방파제의 표면은 이끼들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럽다. 꼭 비 온 날이 아니더라도 파도로 인해 바위가 젖어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주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편인데, 실제로 젖어서 미끄러워진 표면은 눈으로도 분간이 어려워 대형 사고를 낼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외에도 파고 정보를 유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어 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날은 낚시는 삼가는 것이 좋다. 예전에 업무적으로 너울 피해에 대한 신문 스크랩을 한 적이 있는데, 낚시꾼들의 사건·사고 내용을 적지 않게 보았다. 악천후에 특정 고기들이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 욕심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낚시꾼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취미 또는 생활낚시로 인해 주위에 슬픔과 경악을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매력적인 낚시의 세계

바다낚시는 매우 매력적이다. 특히 낚싯줄과 낚싯대로 전해지는 생명력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고기를 잡는 것이 낚시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낚시 행위 중 돌아보는 바다 풍경을 보는 맛도 있거니와 자신만의 고독한 생각을 가져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친한 지인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워보는 것도 소소한 낙이 될 것이다. 낚시꾼은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즐기는 '취미'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물고기와 정당하고 공정한 승부를 즐겨야 될 것이다. 여기서 공정한 승부란 딱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물고기를 자신의 대전 상대로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낚시를 물고기와 승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란철의 알배기, 작은 치어의 방생은 기본일 것이며, 사람과 싸우기 싫다고 먼 바다로 나간 고기들을 배 타고 쫓아가서까지 귀찮게 하는 일은 낚시꾼의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 아닐까. 🐟

REPUBLIC OF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코뿔소



카디프 대학(Cardiff University)의 국제 연구팀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최신 논문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코뿔소(Black rhinoceros)를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최초로 현재 살아있거나 멸종한 모든 검은 코뿔소의 유전자를 비교하여 검은 코뿔소의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감소한 사실을 알아냈다. 64개의 유전자 혈통 중 44개가 사라져 현재 20개의 유전자 혈통만 존재하며, 유전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개체군을 먼저 보호하지 않으면 검은 코뿔소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디프 대학 생명과학부의 마이크 브루포드(Mike Bruford) 교수는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지난 200년 동안 검은 코뿔소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 환경 변화에 맞게 진화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종의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는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후 변화와 아프리카 자연 훼손이 그 원인으로 미래에 적응 가능한 잠재력을 위협한다. 연구자들이 수집한 새로운 유전적 데이터는 종 보존을 위해 우선시되는 개체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완전 멸종을 방지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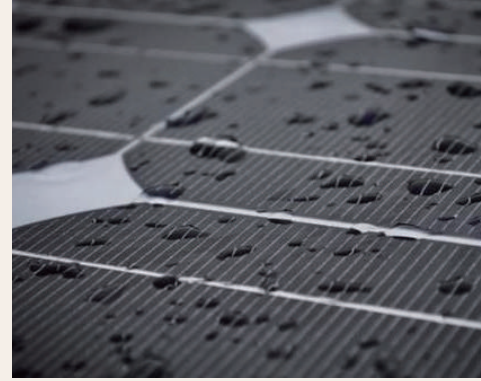
연구팀은 야생동물의 조직 및 배설물 샘플과 박물관 표본의 피부 조직에서 추출한 DNA를 사용했다. 모계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로부터 DNA를 일련화하고 과거와 현재의 개체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전적인 DNA 감식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코뿔소 유전자를 서로 비교했다. 그다음 단계는 유전적 다양성의 손실이 전체 개체군의 유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현재 만연한 밀렵이 주는 중요한 정보와 특별히 더 위협받는 개체군이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것이다. 검은 코뿔소는 이미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있고, 현재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케냐,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5개국에서만 생존해있다.

출처: phys.org



중국, 빗방울로 발전이 가능한 그래핀 태양광 패널

중국의 과학자들이 빗방울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래핀(단일 격자층 탄소)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고 있다. 이 태양광 패널은 6.53%의 태양광-전기 전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도 발전할 수 있다.



칭다오의 중국해양대학교와 쿤밍의 윈난 사범대학의 연구팀은 인듐 주석 산화물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 후판을 그래핀 박막으로 코팅한 고효율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빗물이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빗방울은 양으로 하전된 나트륨 이온은 물론이고 칼슘과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빗방울이 그래핀 층의 상부에 닿으면 유사축전기(pseudocapacitor)를 형성하고 두 층 간의 잠재 에너지 차이는 전류를 생성할 만큼 강해진다.

놀라운 물질로 알려진 그래핀은 연필의 재료인 흑연에서 추출한다. 2013년만 해도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그래핀 조각 1개가 1,000달러 이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비싼 재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가격은 그램당 10센트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날씨와 상관없이 '전천후' 발전이 가능한 태양전지는 개념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차적인 도전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온 용액과 비교할 때 빗물의 이온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처럼 새로운 설계를 채택한 태양광 패널은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현재의 태양전지 기술을 촉진해줄 수 있다. 날씨 대부분이 구름과 비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이런 전천후 태양광 패널이 기존 기술로 공급할 수 없었던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빗물에 포함된 이온을 이용하여 햇빛이 없을 때도 발전이 가능한 태양전지가 간헐적인 청정에너지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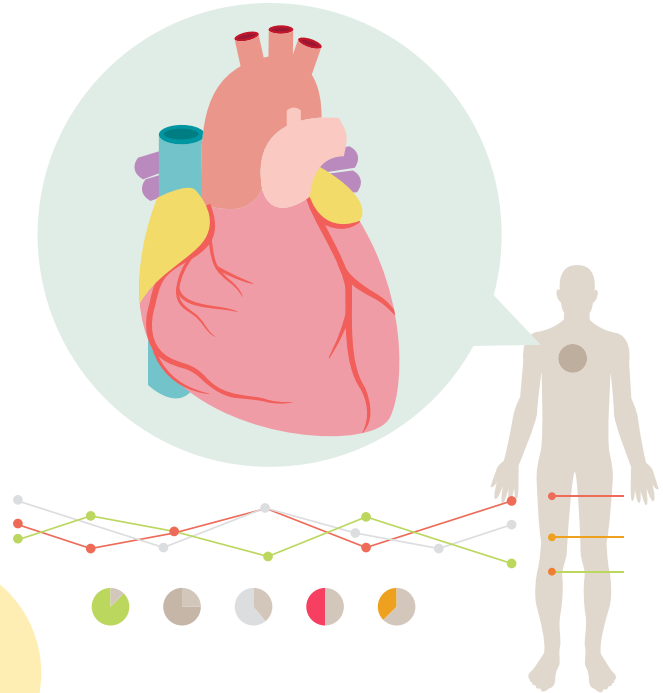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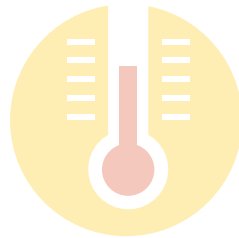
출처: <http://www.wnd.com>



봄의 일교차! 주의하세요

심혈관계질환과 일교차

하루 중의 최고 기온 값과 최저 기온 값의 차를 말하는 것을 일교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일교차 발생하면 아침마다 뭘 입어야 할지 고민도 되고, 큰 일교차로 인해 쉽게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봄철에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나는 것일까요?



봄의 일교차는 왜?

봄으로 갈수록 해가 길어지면서 일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밤이 돼서 해가 지게 되면 야간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푹 떨어져서 일교차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봄철 건조한 대기, 기단 등 일교차가 커지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면역력이 낮아져 많은 분이 감기나 몸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 생길 수 있는 질병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심혈관계에 적신호가 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쉽게 지나쳐버려서는 안 될 병이기도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혈관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즉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될 때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신체 각 부분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혈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류를 공급하는 펌프의 역할을 하는 심장도 역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필요



이나정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필요한 양만큼의 혈류량을 공급받지 못하면 심장근육은 대사산물이 축적되고 저산소증에 처하게 되어 그 기능의 장애가 초래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질병으로 고혈압, 허혈성 심장 질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뇌졸중, 부정맥이 있습니다.

혈관과 일교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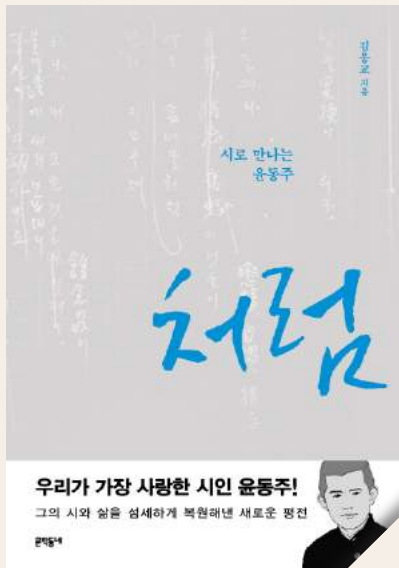
일교차가 큰 날은 밤이 되거나 새벽이 되면 낮보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혈관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은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서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혈관 안쪽에 뭉쳐있던 것들이 심장 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발생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

- 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의 경우 새벽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외출이나 운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보온에 신경을 써서 충분히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과식은 금물입니다. 식사는 일정하게 하되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 현미 등의 통곡물, 등푸른생선 등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정기적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일교차가 크니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흔하게 들을 수 있지만, 왜 주의하라고 하는지는 아시겠나요? 생소하게 느껴져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심혈관계질환! 잘 대비해서 건강 꼭 챙기세요! 📖

※참고:네이버건강백과, 기후일보, 환경TV, 대기환경과학(C. Donald Ahrens)



시로 만나는 운동주 '처림'

저자 김응교 | 문학동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운동주 시, 「십자가」 中 —

책 제목에서 '처럼'이 돋보인다. '처럼'이란 조사만 한 행으로 쓰여 있는 이 시는 영어 시, 일어 시, 중국어 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책 제목이 『처럼』이 된 이유다.

교과서만 봐도 운동주의 시가 여러 편 실려있지만 주로 운동주가 대학교 4학년 시기였던 1941년의 시 「십자가」, 「서시」, 「별 헤는 밤」, 「간」에 편중되어 있다. 운동주가 연희전문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동시를 더 많이 썼던 '동시 시인'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운동주에게 영향을 주었던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운동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운동주의 외삼촌이자 스승, 항일 운동가 김약연

'만주'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공동체인 명동촌은 김약연, 윤하현(운동주의 조부), 문병규(문익환의 고조부) 등 다섯 가문 140여 명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이 바로 운동주가 태어나고 자유롭게 민족문화를 배운 곳이다. 명동촌에서는 제일 좋은 땅에 서당을 차릴 정도로 인재 교육에 큰 공을 들였는데 교육의 중심에 김약연이 있었다. 김약연이 초대 교장이었던 명동학교에서는 마음껏 한글과 민족을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초등학교라기보다는 독립군 양성소에 더 가까웠다. 운동주는 이 시기에 김약연에게서 맹자,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았다.

운동주의 동갑내기 고종사촌 형, 송몽규

송몽규는 운동주에게 시를 쓰게 하는 결정적인 자극을 준 인물이다. 조용한 성격의 운동주와 달리 송몽규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송몽규는 열여덟 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가로 등단한다. 이 소식은 운동주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운동주는 그날부터 모든 글에 창작일을 적어 보관하기 시작했다. 신춘문예 당선 후 송몽규는 출세의 길 대신 무장투쟁하는 전사의 길을 택한다.




김세미
수도권기상청

운동주의 연희전문 후배이자 글 벗, 정병욱

정병욱은 통째로 사라질 뻔했던 운동주의 육필 원고를 보관했다가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운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육필 원고 묶음을 세 부 만에 한 부는 지도교수 이양하 선생에게 드리고, 다른 한 부는 정병욱에게, 그리고 남은 한 부는 운동주 자신이 가지고 1942년 2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정병욱도 이후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징집되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원고를 넘기며 보관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정병욱의 어머니는 원고를 향아리에 담아 마룻바닥 아래 묻어두었다. 일본어 교육을 강화한 1940년대 운동주의 한글 육필 시집은 일제의 시각에서 보면 불온 문서였지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시집 한 권으로 조용히 살아있었다.

마주 보며 자란 친구, 문익환

문익환은 공부를 잘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글을 잘 쓰는 운동주와 송몽규를 늘 부러워했다. 문익환이 쓴 시를 운동주가 “이게 어디 시야.”라고 무안을 준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평은 다른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 1935년 숭실중학 편입 시험에 문익환은 합격했는데 운동주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운동주에게 이 일은 큰 상처가 되어 몹시 괴로워했다고 한다. 서로에게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이 둘은 서로 마주 보며 자란 거대한 두 나무였다. 문익환에게 운동주는 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였고 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운동주가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는 자세는 「자화상」, 「십자가」, 「간」, 「쉽게 쓰여진 시」 등에서 볼 수 있다.

문익환이 운동주에게 느꼈던 작가적인 자세는 문익환을 시인으로 만들어갔고 신세 살에 시인으로 등단한다. 1945년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사망한 벗 운동주의 유고시 「쉽게 쓰여진 시」를 읽으며, 문익환은 울고 또 울었다고 한다. 문익환이 좋아하던 존재, 운동주에게 품고 있던 열등감과 혐오가 책임감으로 바뀌던 순간이었다. 이후 문익환은 운동주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옥고를 치르면서도 인권과 민주와 통일을 위해 앞장선 삶을 살았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운동주. 그 해답을 알려주는 책이다. 





역사와 로망을 간직한 도시 프라하를 다녀오다

‘프라하’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낭만의 도시, 빨간 지붕들의 풍경, 아름다운 카를교의 야경 등 여행하기 전까지 나는 프라하를 본격 여심 저격 여행지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여행 후 프라하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게 된 후 그동안 느낌적인 프라하, 눈으로만 프라하를 알고 있었다면 이번 여행 이후로 프라하의 진짜 모습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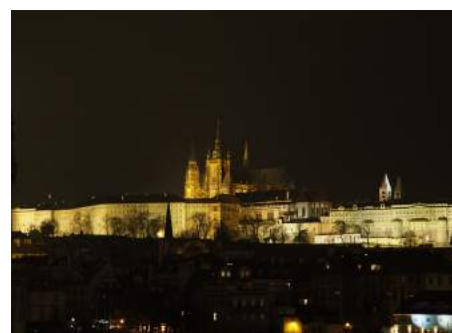
조현지
대전지방기상청

붉은 지붕들의 비밀

‘프라하’하면 붉은 지붕들이 수놓은 아름다운 풍경이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구시가지의 오래된 건물들의 지붕은 대부분 붉은색으로 그 모습이 아름다워 전 세계 많은 이들이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동화 같은 도시의 붉은 지붕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이곳은 민가 지역입니다. 폭격하지 마세요.”라는 표식이라고 한다. 그 얘길 듣고 다시 보니 아름답게만 보이던 풍경이 한편으로는 애처롭게 보였다.

체코 민주화의 현장, 바츨라프 광장

우리에게 2002년도 월드컵으로 탄생한 붉은 악마 응원단, 그리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촛불이 가득한 광화문 광장이 있다면 체코 프라하에는 바츨라프 광장이 있다. 바츨라프 광장은 체코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선언 선포, 1968년 자유민주화운동 ‘프라하의 봄’, 1989년 공산정권을 붕괴시킨 평화적 시위 ‘벨벳 혁명’까지 모두 이곳 바츨라프 광장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민주화를 향한 체코국민의 강한 염원과 투지를 알게 해주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광장의 시작점엔 성 바츨라프 기마상이 있고 광장을 따라 내려오다 오면 멀지 않은 곳에 민주화 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두 청년의 기념비가 있었다. 마침 우리가 갔을 때 그들의 기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여서 그런지 많은 꽃과 초들이 놓여있었는데 매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 기린다고 생각하니 그들에 대한 체코 국민들의 고마움과 존경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구시가 광장

구시가 광장은 이름 그대로 구시가지의 중심에 있는 광장이다. 약 11세기에 형성된 곳으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시대별 건축양식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건물들의 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광장 중앙에 종교 개혁가 얀후스의 동상이 틴성당을 바라보며 서 있고 남쪽으로 구시청사와 천문시계탑이 있다. 원래 구시청사와 천문시계탑은 한 건물이었는데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공습으로 천문시계탑을 제외한 구시청사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공습 이후 움직이지 않던 천문시계는 1948년 복구되어 현재 프라하의 명물로 자리 잡은 반면 파괴된 구시청사는 보는 체코인들로 하여금 전쟁의 끔찍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복구하지 않고 공터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

영광과 굴욕의 시간을 품은 프라하성

트램을 타고 프라하 여행의 꽃 '프라하성'으로 향했다. 프라하성은 체코를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물이자 유럽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으로 그 크기와 화려함이 중세시대 보헤미아 왕국의 영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프라하성은 체코인들이 사랑하는 '성 비투스 대성당'을 비롯하여 교회 등 다양한 양식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프라하성은 9세기 말 처음 세워져 영광과 굴욕의 시간을 거쳐 그 모습이 계속 변화했다고 한다. 나는 많은 건물 가운데 프라하성 정문이 가장 인상 깊었다. 프라하성 정문 두 기둥에는 '거인들의 싸움'이라는 조형물이 각 기둥에 있는데 위에서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는 오스트리아인이고 그 아래에 맞고 있는 이는 체코인이라고 한다. 이는 체코가 합스부르크 제국에 지배를 받던 시절 체코의 비참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경복궁 정문에 일본인이 한국인을 때리는 동상을 세운 격인데(글을 쓰고 있지만 상상도 하기 싫다.) 이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잘 보존한 이유는 후손에게 잊지 말자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소름 돋으면서도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지 않을 수 없다.

프라하에는 국민 그리고 나라를 위해 애쓴 역사의 흔적들이 눈 닿는 곳마다 있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비록 자존심을 버려야 했지만 그 노력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들이 보존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 그 내용이 비록 굴욕적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는 프라하. 체코를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



전주는 지금 소문만복래

소문만복래는 '웃는 문으로 만복이 온다'는 뜻으로 흔히 말하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의미이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삶을 재미있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참 웃는 일이 많은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웃음을 통해 소통하는 전주기상지청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유재영
전주기상지청

주말부부는 옛말~ 새로운 직장문화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부 커플이 2쌍이나 있는 것이다. 그중 한 쌍이 바로 우리 커플이다. 부부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불편할 때가 있다. 조직개편 이후 광역화된 지금 기상청 내 부부 커플의 경우에는 같은 청이나 부서가 아니라면 같이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 중심을 두고 일과의 양립을 추구하는 것이 현 추세라면 전주기상지청은 그 부분에서 참 선도적이며 진보적으로 앞서가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 글을 빌어 같이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배려를 해주신 전주지청 직원들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추억과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소통

전주기상지청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색다른 소통 문화를 꼽을 수 있다. 간혹 출출할 때는 지청장님을 포함하여 30여 명이 사다리를 타서 간식을 먹기도 하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함께하며 또 다른 추억거리가 생기고 웃음이 되며 이것이 정으로 쌓여서 가장 격식 없고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힐링데이 날을 정해 남녀 팔씨름대회, 계주, 발야구 등 다양한 운동이나 게임을 통해 서로 간에 추억과 웃음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운동이나 게임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는 두고두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웃으며 회자되곤 한다.





나를 말해주는 또 다른 이름, 별명

별명은 어릴 적 친구들을 부를 때, 놀릴 때 많이 사용하던 것이다. 별명이라는 것은 부르는 상대와 친분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기 상지청에는 별명이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 대우 사무관이 된 직원분은 대우 사무관이 됐으니 대접해 달라는 너스레에 그 직원분의 성을 따서 '대사'라는 별명이 있고, 운전을 잘하는 질주 본능을 가진 여직원분에게는 '기상청 슈마허'라는 별명도 있다. 이외에도 성질이 불같아 붙이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가스'라는 별명을 가진 직원도 있고, 항상 전자기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원에게는 맥가이버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별명을 부르고 별명의 뜻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곤 한다. 별명이 그 직원의 조그마한 특징을 가지고 과장되어서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나 별명을 부름으로써 서로 간에 친근함을 통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단,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심한 별명은 절대 삼가야 한다. 그것은 눈치껏!

웃음을 통해 복을 받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참 경직되고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더욱 그러하지 않은가 싶다. 업무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웃음이 스며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서로 간에 웃는 얼굴을 보고 또 크게 웃을 수 있는 직장. 웃음을 통해 언제고 기억하면 참 기분 좋은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직장. 서로 간의 배려에 추억과 웃음이 더해져 정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직장. 바로 그러한 직장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직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늘도 전주는 웃음으로 복을 맞이하고 있다. ☺

봄에 닿는 순간

사랑에 빠지던 그 봄을 여전히 나는 잊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짐작하는 어느 순간까지 잊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말로 단언하고 싶지 않고, 기필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지 못하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웠던 그날의 온도와 공기, 바람, 꽃잎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서 나를 흔들었던 그 봄의 너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벚꽃에 이어 겹벚꽃까지 만발한 아주 먼 이 봄날까지 여전히.



이옥수
독립잡지 트럼폴린 편집장

정말 온전한 봄이었다. 4월이었으나 나에게 그 봄이라는 계절이 청춘의 봄으로 다가온 것은 기상학적으로 3월에서 5월이기 때문도 아니었고, 아지랑이나 이동성고기압, 황사와 미세먼지라는 단어들이 자리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서쪽으로 기우는 은하수 때문에 겨울의 별자리에 비해 밝지도 다양하지도 않은 별자리를 가진 하늘이었지만 아르크투르스와 스피카 그리고 북두칠성이 만들어내는 봄의 대곡선을 볼 수 있는 날이 계속되었다. 아직 쇠지 않은 봄채소의 어린 맛은 입안에 새로운 계절을 불러왔다. 그리고 벚꽃의 개화 소식을 접했다.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 무료해진 나는 아주 무심하게 너에게 말했다.

“다음 주면 벚꽃 핀대. 만개래.”

네가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나를 보았다. 네 어깨너머의 창밖으로는 거짓말처럼 벚꽃이 봉우리를 맺고 있었다. 매일 도서관에 왔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너에게 드리워진 벚나무의 그림자에 나는 짐짓 태연하게 말했다. 대충 본 기사의 내용을 엉망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했지만.

“여의도 윤중로에 관측목이 있는데 수목관리번호 118번에서 120번 나무가 관측목이래. 이 나무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 꽃이 피면 그걸 개화라고 한대. 그리고 벚꽃은 개화하고 일주일이면 만발한대.”

내 맞은편에 앉아 있던 너의 대답은, 그래 어쩌면 너의 그 말에서부터 나는 나의 미래를 내 사랑의 방향을 가늠해보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의 그 한 마디로 나의 봄이 달라졌으니.

“다음 주에 같이 벚꽃 보러 갈래? 윤중로에.”

너의 물음에 떨림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기분이 이상했다. 대화란 아무도 모르는 관계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무방비한 상태에서 행해질 때,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나는 무심한 척 짐짓 표정을 감추며 물었다.



“벚꽃은 무슨. 중간고사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내 말에 너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의 네 성격대로라면 너는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청춘이라거나 계절의 낭만도 모르는 무심한 사람이라며 장난스럽게 나를 타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냥, 그냥 해본 말이었어.”

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책에 시선을 두었다. 너의 마르고 작은 등에 벚나무 그림자가 어리었고 나는 차마 계속 볼 수 없어 책을 덮었다.

“지금 가자.”

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의 온도에 따라 계절이 변한다. 여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되기도 한다. 더 뜨거워지면 온통 여름이기도 했다. 다가 이따금 비를 몰고 와서 그 온도를 순식간에 내려버리기도 한다. 그날, 너와 아직 벚꽃이 피지 않은 윤중로를 걸었다. 한참 걷다가 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나무인가 봐. 118번 나무야.”

가지에는 몽우리가 있었고 이미 활짝 핀 벚꽃이 아주 드물게 있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내 말에 너는 같이 찍자며 내게 팔짱을 끼고, 그날 찍은 사진에서 너는 맑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좋아했다. 무심하지만 상냥한 봄 같은 너를. 아무도 없는 겨울의 어느 순간에 서 있는 것 같던 나를 봄의 한가운데로 데려다주던 너를. 그리고 내 계절을 아주 긴 봄의 순간으로 만들어준 너를. 그리고 아직 벚꽃이 채 피지 않았던 그 날을.

그해, 너를 좋아하게 될 것이 분명한 봄날이었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센서탑재형 드론 개발 및 활용 워크숍(3월 6일)
 기상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첨단정보통신기술과 기상기술이 융합된 '기상센서 탑재형 드론' 개발의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상 분야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꽃가루 농도위험지수' 서비스 시행 정책브리핑 개최 (3월 16일)
 이번 정책브리핑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위험도를 알리는 '꽃가루 농도위험지수' 서비스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상자료개방포털 활용' 언론인 기상강좌 개최(3월 8일)
 출입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기상과학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행된 이번 기상강좌에서는 기상자료개방포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기상청-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 체결(3월 16일)
 기상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상정보를 통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편집단

Photo News



제9기 블로그기자단 발대식 개최(3월 20일)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통한 기상과학 및 기상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9기 블로그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자활동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3월 23일)

2017년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기상청 2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에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이상돈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 개최(3월 21일~26일)

'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40점이 전시되었다.



평창 국제공동연구사업 관측그룹 국제워크숍 개최(3월 23일)

세계기상기구(WMO)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평창올림픽 지원 국제공동연구사업 관측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 미국, 스페인, 대만 등 관측 및 자료동화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여 2018년 세부 관측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독자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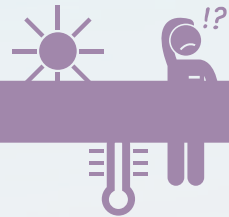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Q&A

봄과 가을은 느낌이 왜 다를까

봄과 가을은 어떤 한 시점의 기상 조건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 느낌과 속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즉, 완전한 봄인 4월 중순과 가을의 절정인 10월 중순은 평균기온이 13℃ 안팎에 습도도 60~70% 수준으로 사람에게 가장 쾌적한 기상 조건이다. 그런데도 봄과 가을의 느낌은 사뭇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기온이 올라가고 있을 때가 내려갈 때보다 자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봄이 되면 마음이 들뜨고 격정적으로 변하는 반면, 가을이 되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 의학자는, 봄에는 태양고도가 높아지면서 햇살이 강해지는데 이때 강한 햇빛이 간뇌를 자극해서 이 자극이 뇌하수체로 전달되어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 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가을에는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여기에서 느낀 찬 감각이 간뇌의 각성 중추를 자극해서 의식을 더욱 또렷하게 해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작용으로 사람은 한여름의 불볕더위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가을이 되면 감각과 사고가 또렷해진다는 것이다.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웃는 문으로 만복이 온다'는 뜻으로 흔히 말하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의미인 고사성어는?

- ① 소문만복래 ② 오비이락 ③ 가화만사성 ④ 대기만성

2. 아시아 서남부 인도양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약 1,190여 개의 많은 산호섬이 있으며,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국가의 이름은?

- ① 발리 ② 일본 ③ 미국 ④ 몰디브

1. ④ 날씨경영
2. ④ 윈드시어

- 김옥희(대전) 김용산(양산)
강현정(시흥) 강미선(서울)
최진철(인천)

시끌벅적 하늘사랑

김옥희 대전

모든 내용이 흥미진진했지만, 특히! 항공의 적이라 불리는 윈드시어에 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 흐뭇했습니다. 저도 간혹 비행기를 탈 경우가 있는데요...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제대로 이륙을 못 했던 경험이 있네요. 얼마 전에도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헉! 엄청난 스모그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결항이 속출했던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역시나 날씨가 맑고 청명한 것도 대단한 복 같더라고요. <날씨가 테러보다 더 무섭다>는 느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요즘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의 공포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네요~ 어서 빨리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고 싶네요.

김용산 양산

3월호 기사 중 오은영 선생님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기사를 두 남매를 키우는 아빠라서 그런지 매우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항상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지만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이들도 언제부턴가 아빠는 무서운 아빠, 어려운 아빠로 생각하게 되는데 기사를 읽고 나서 잠시나마 아빠인 저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보단 아빠인 제가 먼저 변해야 하고 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해하고 기다려주었는가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강현정 시흥

해외는 아니었지만 제주에서 기상 악화로 발이 묶여 가족들은 물론이고 회사 일까지 곤란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청주기상지청 김순님의 경험담을 담은 '발칸에서 만난 테러보다 무서운 날씨'를 백번 공감하며 보았습니다. 기상관측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예약이 필수인 여행의 경우 기상이변이나 악천후에 속수무책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험담들을 잘 귀담아 두었다가 여행 전 사전 준비를 더욱 꼼꼼히 해둔다면 혹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졸이기 보다 덤으로 얻은 시간을 좀 더 만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미선 서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데도 날씨를 이용했다는 글에서 날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4월과 8~9월 사이에 좋은 날씨를 골라 실록을 햇빛에 말리고, 바람을 쐬어 습기를 제거하는 포쇄처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실록이 잘 보관되어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날씨를 잘 이용한 지혜가 돋보였는데,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의 역할이 미래에는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춘곤증

겨우내 숨겨왔던
저마다 가진 빛깔을
온몸으로 내뿜는 완벽한 봄

나른한 공기
부드러운 풀 내음
창가에 걸터앉은 따뜻한 햇살
순간 아득해지는
꽃피는 소리

스
르
룩

어느새,
눈꺼풀 위로 불시착하는 봄

글: 조아라

사진: 강미원, 2017 기상기후사진전 계절사진상 <진달래 동산>

"국민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신속 · 공정한 권리구제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

-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등 부과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전화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K<스타트업

2017
3.27 (월)
~ 5.8 (월)

나와 세상을 바꾸는 기회! **도전!**
K-스타트업
2017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
바로 당신이 **11억원의 주인공**입니다.

모집접수

혁신리그(미래부) | www.creativekorea.or.kr
창업리그(중기청) | www.k-startup.go.kr

학생리그(교육부) | www.u300.or.kr
국방리그(국방부) | www.m-startupchallenge.or.kr